

第一次

仙 & 道 國際學術大會

The 1st International Sun(仙) & Tao(道) Conference
제1차 선&도국제학술대회/第一屆 仙&道國際學術研討會

새 시대를 여는 동아시아 토착문화의 학제 간 연구 :

전통문화 / 생명사상 / 환경생태 / 건강양생 / 동양예술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the Indigenous Cultures
of Eastern Asia for the New Era

下

健康과 養生

土着思想과 固有文化

文學藝術과 生命思想

環境과 生態

■ 日期 : 2009年 10月 22日 - 25日

■ 地點 : 高麗大學 百周年紀念館 / 國際館

■ 主催 : 世界金仙學會 / 韓國道家哲學會 / 韓國道教學會 / 韓國道教文化學會

■ 主管 : 高麗大學 環境生態研究所 · 哲學研究所 · 日本研究中心
國立群山大學 文化思想研究所
神明文化研究所 / (社)國際仙道交流振興院

■ 後援 : ㉠ 동원그룹 ㉡ 중앙일보

一元氣와 精氣神의 關係에 대한 考察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rimordial Energy and Body Essence, Vital Energy and Mentality

Baik Yousang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白裕相

Dept.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Astract

In this study, the aim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Primordial Energy, with which the Universe is filled, and Body Essence, Vital Energy and Mentality, to recognize the slightly difference of Medicine and Taoism. Nex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o medical thinks, philosophy and works with this recognition as a analytic method. The examination on the aspects of primordial energy and specialized Gi will make it possible to read the stream beyond the History of Oriental Medicine.

The aim of medicine was laid on treating diseases with process of essentializing Gi based on specialized viscera and meridian systems, while that of personal training of Taoism was on being united with movement of sole primordial energy in the Universe to maintain life and gain longevity.

Overcoming this problems that origin from difference between medicine and Taoism, we have to develop new methods of medical Taoism training suited to medical environment in this age.

Keyword: Primordial Energy, Body Essence, Vital Energy, Mentality, Korean medicine.

I. 序論

韓醫學과 道學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思想的으로는 동일한 바탕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것은 宇宙의 운동 변화는 氣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나며 인간도 이러한 氣의 변화에 순응하여야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고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氣一元論적인 세계관은 역사적으로 韓醫學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질병 치료와 道家 수련의 과정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韓醫學에서는 陰陽五行論을 바탕으로 藏象, 經絡의 특성에 따라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辨證하여 이를 근거로 치료를 시행하므로, 이러한 과정을 완수하기 위하여 질병의 특성을 정확하게 규명해내야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¹⁾.

1) 질병의 특성을 정확히 감별해 내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진단 방법이 필요하나, 형식이 분화될수록 전체적인 편차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읽어내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상을 객관화하여 관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²⁾. 특정 질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치료를 하여야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학문으로 정립되어 타인에게 설명되고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하여 道家의 수련은 다른 사람을 수련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단련함으로써 현실의 보편적 인간성을 초월하여 宇宙와 合一하는 데에 있었다³⁾. 그러므로 氣의 승강출입을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그 움직임을 조절하여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으로 回歸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⁴⁾.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醫家들이 직접 道家 수련을 하여 氣의 실체를 인식하고 그 경험을 임상에 응용하려고 하였으며⁵⁾, 道家의 수련자들도 의학지식을 흡수하여 질병을 예방, 치료하며 長壽를 누리려고 하였다. 실제로 두 분야를 완전히 분리시키기 힘들며 여러 의학서적의 내용이나 의가들의 사상 속에서도 서로 융합되어 기술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宇宙에 충만하면서 그 운동을 주도하는 一元의 氣와 精氣神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醫學과 道學 사이의 미묘한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各家의 醫學思想과 저작에 대하여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근원적인 氣와 분화된 형태의 精氣神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이면에 있는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II. 本論

1. 一元氣와 分化

氣一元論의 배경에는 우주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우주 전체는 하나의 氣로 충만 되어 있으며 우주의 운동은 곧 이 一元氣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⁶⁾.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분화되어 있는 현실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의 성질을 가진 무언가에 의하여 그 변화가 외부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초기 형성기부터 韓醫學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주관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⁷⁾.

이러한 보편성은 宇宙가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유기

- 2) 특성을 파악하여 여러 종류의 病症을 판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病症에 해당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과학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증명하여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갖추게 된 각각의 象을 證이라 한다.
- 3) 의학이 平人을 목표로 상정하여 치료하는데 비하여 道家의 수련은 일반적인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이른바 真人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內經·上古天真論』의 여러 道人的 유형 중에서 真人을 으뜸으로 둔 것은 바로 이러한 道家의 맥락이 포함된 것이다.
- 4) 여기서의 궁극적인 생명의 원천이란 宇宙 氣 變化的 출발점이며 동시에 중심이 되는 一元이라 할 수 있다.
- 5) 巢元方이 610년에 편찬한 『諸病源候論』에도 각종 질병의 병인, 병리, 증후 등을 서술한 후에 導引法을 붙여 놓은 것이 많으며, 중국 양나라의 陶弘景(456~536)도 『養性延命錄』를 지어 道家의 관점으로 養生의 각종 금기 사항과 服氣, 療病, 導引, 按摩 등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 6) 一元의 氣를 元氣 또는 原氣라 한다. 『公羊傳解詁』에서는 “元者, 氣也. 無形以起, 有形以分, 造起天地, 天地之始也.”라 하여 처음에 무형에서 시작하여 형체를 갖추어 분화되어 나가고 궁극적으로 天地가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春秋繁露·重政』에서도 “元者, 爲萬物之本.”이라 하였다. 이러한 元氣가 모이면 만물이 나고 사람도 태어나는데 『莊子·知北游』에서는 이를 “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라 하였다. 즉 이러한 元氣의 聚散 과정이 바로 나고 죽는 것이라 보았다.
- 7) 『素問天元紀大論』에서 “臣積考太始天元冊文曰, 太虛寥廓, 肇基化元, 萬物資始, 五運終天, 布氣真靈, 總統坤元, 九星懸朗, 七曜周旋, 日陰日陽, 日柔日剛, 幽顯既位, 寒暑弛張, 生生化化, 品物咸章.”이라 하여 宇宙의 太虛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인 化元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天地가 陰陽운동을 하여 生生化化하여 온갖 物물을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유기체적 세계관에서 출발한다. 또한 종교의 유일신 사상과도 이와 비슷하여, 통일체 속에서 그 중심에 해당하는 一元에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후자의 경우에는 氣를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神性的 절대성에 의하여 宇宙가 운동한다고 본 것이다. 동양에서는 理의 개념에 이러한 절대성을 부여하기도 하였다⁸⁾.

이에 비하여 精氣神은 氣一元論보다 分化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精氣神 중의 氣의 개념은 이미 氣 이외에 精, 神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精氣神 중의 氣는 협의의 氣가 된다. 따라서 精氣神은 一元氣가 分化된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精氣神이 一元氣에서 분화되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精과 神은 광의의 氣 속에 완전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가? 神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氣와 차원이 다르므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精氣神의 神도 氣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神이다. 즉 精氣神의 神은 宇宙의 절대자로서의 神이 아니라 실존하는 하나의 生命體가 가지고 있는 神적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氣와 연결이 가능하다⁹⁾.

一元氣의 개념에서 분화하여 精氣神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은 구체적 실체를 가진 인간에 대하여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實在하는 온전한 인간이란 발생학적으로 보면 가장 분화된 최종 단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분화된 인간 실체를 臟象論과 經絡論을 근간으로 설명한다. 經絡은 인체 구조의 表部에 위치하여 氣의 순환과 출입에 관여하고, 臟腑는 理에 위치하여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관장한다¹⁰⁾. 韓醫學에서 볼 때 筋骨肌肉의 형체는 단지 이들을 보완하고 돕기 위한 구조와 기능을 가질 뿐이다.

이와 같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극도로 분화된 인체의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위에서 말한 精氣神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그러한 분화가 바로 精氣神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형식이기 때문이다. 인간 실체는 우선 神의 주도하에 氣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氣는 다시 승강 출입의 과정 속에서 성숙되고 精化되며, 이때 정화된 氣[精氣]는 다시 神의 활동에 질서를 부여한다. 이러한 일련의 운동 변화가 곧 陰陽五行의 변화이다. 神의 主宰 하에 木氣의 작용에 의하여 氣化가 일어나 發散되면 이어서 火氣의 작용에 의하여 氣가 위로 오르면서 가장 表部의 말단까지 확산된다. 여기까지가 陽의 단계이며 이때 외부로부터 氣가 생명체 안으로 유입된다. 이후 土氣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된 氣를 융합하여 다시 새로운 형식의 氣로 만들고 이것이 金氣의 肅降作用을 통하여 소모되는 동시에 精化되면서 최종적으로 水氣에 의하여 가장 깊숙한 곳에 갈무리되어 생명력을 유지 보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陰 運動의 단계이다. 이상의 陰陽五行 운동을 종합적으로 三陰三陽의 변화로 설명할 수도 있다¹¹⁾.

여기서 생명력을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肅降과 갈무리의 과정에서 氣가 질적인 변환을 일으켜 精化되는 것이다. 精化된 氣[精氣]는 생명현상의 가장 원초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을 유지하는데 활용되며 또한 인간의 종족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氣의 성숙과 精化

8) 宋代 性理學에서 天理를 강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9)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라 하여 陰陽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神明이 깃든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神明은 절대자로서의 神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현상의 하나로써 발현되는 神의 구체적인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라 하여 이러한 神의 속성을 五臟 중 心에 부여하였다.

10) 臟腑와 經絡은 서로 表裏를 이루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유하자면 나무의 잎과 뿌리의 관계와 같이 五臟(또는 六腑)은 正氣를 表部로 끌어내어 순환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하며 12經絡은 발산된 正氣를 순환시켜 승강출입을 실제로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

11) 三陰三陽의 개념은 陰陽五行의 변화를 表裏內外를 종합하고 여기에 시간의 흐름을 더하여 만들어낸 萬物의 變化를 설명하는 가장 체계적인 理論이다.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우선 형식적으로 분화를 극대화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분화를 진행하는 원동력은 근본적으로 생명체가 자신의 원초적인 모순을 해결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¹²⁾. 분화는 곧 개별적인 특수성을 지닌 세부 단위의 질서를 만들며 이러한 질서를 가진 氣 또는 구조 형식은 다음 단계로서 새로운 통합을 향하여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때에 진행되는 통합은 기계론적인 통합이 아니라 승강출입의 운동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혼돈을 거치면서 질적으로 精化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서는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데, 이러한 精化 과정은 곧 새로운 생명력의 창조를 의미한다.

精氣神은 단계적으로 보면 一元氣와 최종 분화된 인체 사이의 중간 개념이라 할 수 있다¹³⁾. 예를 들어 肝에는 精氣神이 모두 들어 있으나 한편으로 肝氣는 다른 장기와 구별되는 木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만큼 더 분화된 氣이다. 五臟六腑뿐만 아니라 12經絡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手太陰肺經을 순환하는 氣는 보편적인 인체의 氣가 아니라 太陰의 성질을 지니고 上焦를 순환하며 안으로는 肺와 연결되어 있는 특수한 氣인 것이다.

一元氣에서 精氣神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보면 근원의 一氣로부터 떨어져 나와 精과 神의 양극이 먼저 분리되는데 그 목적은 一元의 氣로부터 형이하학적인 氣를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다¹⁴⁾. 형이하학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운동하는 氣는 분화가 이루어질수록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규율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精, 神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된 氣는 객관세계의 법칙을 따르면서 다시 精, 神과 조화를 이루어 순환한다. 이들 사이의 상호 작용은 다른 외부적 영향을 받거나 우연적인 상황을 동반하므로 정확한 변화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상호 작용의 성공과 실패는 복잡한 변수들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의 우연성은 한편으로 생명력을 창조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2. 道家 수련의 一元論의 특성

道家 수련에서는 분화된 형식의 氣보다는 원초적인 宇宙의 氣一元論과 精氣神의 개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道家는 개인적인 수행을 통하여 宇宙와 合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¹⁵⁾. 이러한 바탕에는 天人相應 사상이 있다. 天人相應 사상은 인간이 宇宙로부터 갈라져 나왔으나 여전히 동일한 구조와 운동 법칙에 의해 宇宙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宇宙와 소통, 合一하여 氣를 순환시킴으로써 宇宙의 영원한 생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극도로 분화된 藏象, 經絡의 개별 작용들을 거치면서 성숙되고 精化되는 氣의 질적 변화는, 道家의 개인적인 수련자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으며 그들은 단지 소통과 合一을 통하여 내면세계의 宇宙화를 추구하는데 주로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宇宙와 合一하는 최종 목

12) 分化의 목적은 생명을 영위하기 위하여 氣를 운행하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다시 성숙과 精化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생명력을 창조하려는 것이다. 分化의 시발은 이러한 목표에서 이탈된 모순된 상태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에 있다.

13) 精氣神이 분화의 중간 단계의 개념이라 하여 최종적으로 臟腑, 經絡으로 분화된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一元의 氣가 분화되어 3개의 형식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며 변화하는 것으로 오히려 분화된 臟腑, 經絡을 통하여 그 변화가 드러난다.

14) 神은 氣의 질적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 陽에 속하며, 精은 고도로 精化되어 神의 창조성이 유지 실현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여 陰에 속한다.

15) 氣의 단련을 통한 精, 神의 변화는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없다. 개인적 성취가 타자에게로 바로 확산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精氣神의 상호 운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 유한성을 지닌 氣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적은 개인적인 長壽와 不老長生에 머물러 있는 한 인간을 초월하여 宇宙와 진정한 의미에서 승一하는 목표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不老長生의 추구는 오히려 절대 神을 지향하는 정신적 초월보다는 물질적 특성에 가까운 精, 氣, 丹의 완성에 치우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진정한 초월이 아니라 개인의 不老長生을 위하여 精氣神을 조절함으로써 內丹術에 치중한 것이다¹⁶⁾.

道家에서 개인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 氣는 精, 神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운행한다. 臟腑, 經絡 등 분화의 형식 속에서 나타나는 氣의 질적 변화가 精[또는 精氣]을 생산하는데 비하여, 道家의 수련에서는 지속적으로 氣를 승강출입하여 운행시키는 과정에서 精, 神이 함께 결합함으로써 그 자체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된다. 丹田에 氣를 축적하는 것은 氣의 精化의 과정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승강출입의 순환이 주목적이므로 發散과 肅降을 통한 질적 精化를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¹⁷⁾. 또한 氣의 질적 변화는 원래 神이 먼저 주도하게 되나, 氣功 수련에서는 호흡과 함께 氣를 순환시켜 神의 상태를 안정시키며 동시에 의념을 집중하여 氣의 흐름을 조절함으로써 서로 함께 융합하여 운동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이와 같이 精氣神의 상호 조절을 통한 氣功 수련과는 달리 分化를 거쳐 氣의 질적 변화 즉 精化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氣는 精, 神으로부터 더욱 독립하여 고유의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운동 변화하게 된다. 이것은 道家 수련에서 氣가 精, 神과 함께 순환함으로써 생명을 이어간다고 보는 것과 달리 좀 더 독립성을 지닌 객관적인 氣가 질적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객관적 氣의 존재는 바로 醫學을 전개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¹⁸⁾. 물론 道家에서 精氣神 중 氣를 핵심적으로 보는 것도 이와 동일하다. 一元氣로부터 파생된 氣는 단순하면서도 보편적인 규칙성, 일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道家 수련에서도 특수한 개인이 宇宙의 보편성과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율성을 가진 氣를 반복적으로 운행하여 精, 神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같은 성질을 가진 氣이지만 그것을 운용하여 추구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으며 醫學에서 바라보고 있는 氣는 좀 더 현실적이고 객관성을 내포하고 있는 氣이다.

3. 醫學의 分化的 특성

醫學은 개인적인 수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他者の 질병을 관찰하여 진단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는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醫學이 巫術로부터 갈라져 나오기 이전에는 샤먼의 퍼포먼스를 통하여 환자가 神, 무당과 합일된 의식 상태에서 질병을 치료하였다¹⁹⁾. 이것은 神과의 교감을 통하여 환자의 몸과 마음을 淨化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었으며, 학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병증을 분별하여 일정한 규율에 의하여 치료를 시행하

16) 道家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학의 역사 속에서도 남북조 시기에 服石과 煉丹이 유행하였다. 服石이란 石藥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으로 心身의 강화 목적으로 한다. 煉丹은 製鍊을 통하여 仙丹을 만들어 복용함으로써 不老長生の 神仙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맹목적인 경향의 폐단으로 인하여 醫學의 학문적 발전을 저해하여 唐宋代까지 정체기가 이어졌다.

17) 發散과 肅降을 통한 氣의 질적 변화의 내면에는 반드시 相火의 작용이 필요하다. 相火의 작용에 의하여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호흡의 통한 畜氣 과정에는 이러한 단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단 의념의 작용이 相火의 發散 肅降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18) 一元의 氣에서 분화하면서 형이하학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氣는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인간의 五感을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일정한 규율에 의하여 변화하므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醫學은 이러한 氣의 규율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시행되는 것이다.

19) 殷代 甲骨文의 내용을 살펴보면 巫의 여러 의식을 통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질병의 원인을 주로 조상신으로 보았는데 의식을 통하여 조상신은 치유의 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巫 이외에 小疾臣은 후대의 醫官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는 辨證論治는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巫術로부터 분리되어 醫學이 학문으로 정립된 이후에는 그 대상이 되는 환자 또는 질병을 객관화하여 인식함으로써 치료하는 과정이 발달되었는데²⁰⁾ 이를 韓醫學에서 辨證論治라 한다²¹⁾. 진단을 통하여 證을 판별한 후에 구체적인 治法을 결정하여 환자에게 약을 주거나 침을 놓게 되는데, 藥의 효능도 그것이 인체에 작용하는 氣의 영향에 의한 것이며 鍼의 효능도 이와 마찬가지로 12經絡을 순환하는 經氣의 흐름을 조절함으로써 인체 생리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객관성을 가진 氣의 운동변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물질적 특성을 지닌 藥의 효능과 氣를 운행시키는 鍼의 작용은 극도로 분화된 객관성을 지닌 氣의 상태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氣가 분화를 할수록 형이하학적인 규율을 띠게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해야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재연성 있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객관적 성격의 氣는 道家 수련에서 시행하는 의념의 집중처럼 어느 한 개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무형의 原理 마음보다는 상대적으로 物質에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韓醫學에서도 분화된 氣뿐만 아니라 氣一元論을 바탕으로 天人相應 思想을 강조하고 있다²²⁾. 그러나 辨證論治의 관점에서 보면 天人相應 思想은 宇宙와 人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만, 실제 임상 치료에서 病證을 구분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만 우주와 자연에 대한 이해나 질병 예방을 위한 修養法을 지도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哲學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精氣神의 개념은 五臟六腑와 12經脈의 극도로 분화된 氣들에 대비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氣一元論의 성격에 가깝다. 辨證을 시행한 결과 중에서 우리 몸 전체의 氣虛, 精虛 등의 개념은 肝氣, 手少陽經氣 등의 개념보다는 상위에 속한다. 따라서 분화된 형식을 다시 통합적으로 조망하여 전체적인 편차를 파악해 내는데 이러한 精氣神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인간과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경우 一元氣의 개념만을 가지고서는 내부적인 편차와 시간에 따른 질적 변화를 표현해 내기에 부족하므로 精氣神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한 것이다.

4. 道家와 醫學의 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道家와 醫學의 특성을 역사적인 흐름을 통하여 살펴보면 우선 『黃帝內經』과 『難經』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黃帝內經』은 의학이 사머니즘에서 분리된 이후 氣 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하는 과정에 성립되었다. 그 학문적 밑바탕에는 藏象과 經絡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었으며, 의학의 발달과정에서 人體의 분화된 구조와 기능 설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이다.

20) 殷代 이후 周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분야에서 학문이 분화 독립되는데 의학도 이 시기에 발전한다. 다양한 의학 학설들은 통일 국가를 이루는 秦漢 시기에 집대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黃帝內經』이다. 『黃帝內經』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학파의 의학지식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陰陽五行의 세계관으로 이를 통일하여 설명하려는 의도가 바탕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주로 객관적 진단에 의하여 病證을 결정하는 辨證 방법이 발전하였다.

21) 證이란 다양한 症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특정 질환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패턴을 읽어낸 결과를 말한다. 이러한 패턴 속에는 질환의 특성뿐만 아니라 원인과 경과 등 시간적 변화의 기전까지도 포함된다. 證을 파악하고 형성하기 위해서는 진단자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證의 발달은 한의학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이다.

22) 『靈樞邪客』에서 “天圓地方，人頭圓足方，以應之。天有日月，人有兩目，地有九州，人有九竅。天有風雨，人有喜怒。天有雷電，人有音聲。天有四時，人有四肢。天有五音，人有五臟。天有六律，人有六府。天有冬夏，人有寒熱。天有十日，人有手十指... 此人與天地相應者也。”라 하여 天人相應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難經』은 『黃帝內經』의 集成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內經』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심화된 이후에 저작되었다. 그 내용은 『內經』의 이론을 정리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독특한 사상을 전개한 것으로 사상적으로는 氣一元論의인 세계관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巫術의 사면이 宇宙와 소통하여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였던 고대의 전통이 道家의 종교 의식과 개인 氣功 수련 속에 녹아들어가 계승되어 내려왔었는데, 그러한 흐름이 戰國末 秦漢期에 집대성된 『黃帝內經』의 人體觀과 접목되면서 쓰여진 책이 바로 『難經』이다. 예를 들어 『難經』에서 처음 제시한 命門의 개념을 살펴보면 호흡을 통하여 출입하는 氣가 丹田에 축적되었다가 다시 元氣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관문을 의미한다²³⁾. 즉 命門은 생명의 元氣가 출입하는 문이라는 의미이며 우리 인체에서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마치 우주에 一元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만물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우리 몸에서 하나의 근원 뿌리가 있어서 그곳에서부터 생명현상이 시작된다고 본 것이다.

애초에 醫學의 경우처럼 辨證을 통한 질병 치료를 추구하지 않는 道家의 입장에서 이러한 醫學적 지식을 도입하게 된 데에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의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위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권위란 곧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당시 秦漢代 이후 통일된 정치체제 속에서 국가적 공인도 받으며 그 권위가 유지되었을 것이다. 즉 道家가 小乘의인 개인 수련에서 벗어나 정치적 성향을 띠면서 세력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시 醫學이 가지고 있던 권위를 빌려려 한 것이 바로 『難經』과 같은 저작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²⁴⁾. 즉 『難經』은 道家의 사상에 기반 한 의학 관련 저술이며 전문적인 醫學者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이고 완전한 辨證論治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와 비슷한 경우로서 金元四大家의 출현과 『東醫寶鑑』 저술 사이의 관계를 들 수 있다. 金元四大家는 『內經』, 『傷寒論』 이후 醫學의 전통을 다시 계승하여 臟腑辨證을 완성시킨 그룹이다. 즉 『內經』에서는 陰陽五行論을 바탕으로 인체의 부분적 특성을 분할하여 인식하는 동시에 이를 다시 整體의으로 통합하였는데, 이러한 전통은 『傷寒論』의 六經 체계로 일부 계승이 되어오다 그 이후로는 발전되지 못하고 단지 원론적인 思想을 담은 상태로 남아있었다²⁵⁾. 이후 침체기를 거쳐 宋代 이후부터 다시 醫學이 발달하면서 인체의 내면을 窮究하고 이를 다시 임상 치료를 통하여 검증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金元四大家의 醫學이 꽃피우게 된다²⁶⁾. 이러한

23) 『難經三十六難』에서 “其左者爲腎，右者爲命門。命門者，諸精神之所舍，原氣之所繫也。”라 하여 精과 神이 머무는 곳이며 原氣가 매어있는 곳이라 하였다. 여기서 原氣가 곧 一元의 氣로서 여기에서부터 기원하여 우리 몸의 변화를 일으킴을 말하였다. 『難經三十九難』에서도 “其左爲腎，右爲命門。命門者，謂精神之所舍也，男子以藏精，女子以繫胞，其氣與腎通，故言藏有六也。”라 하였다.

또한 이러한 原氣가 흘러다니고 작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三焦이다. 『難經三十八難』에서 “所以府有六者，謂三焦也。有原氣之別焉，主持諸氣，有名而無形，其經屬手少陽，此外府也，故言府有六焉。”라 하였고, 『難經六十六難』에서도 “臍下腎間動氣者，人之生命也，十二經之根本也，故名曰原。三焦者，原氣之別使也，主通行三氣，經歷於五臟六府。原者，三焦之尊號也，故所止輒爲原。五臟六府之有病者，皆取其原也。”라 하여 三焦를 통하여 原氣가 臟腑 經絡에까지 미쳐서 운행함을 설명하였다.

24) 통일제국인 漢이 성립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黃老學이 발달한다. 黃老思想은 국가의 지배사상으로서 董仲舒의 철학에 융합되어 유학과 더불어 발전하기도 하였으며, 민간에서는 전통적 도교신앙과 결합되기도 하였다. 특히 민간신앙의 경우는 漢代를 거치면서 정치세력으로 발전하여 국가지배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그 한 예로 張陵, 張衡의 五斗米道를 들 수 있다.

25) 『黃帝內經』에서 陰陽五行論의 全一의인 관점에서 인체를 조망한 것은 三陰三陽 이론으로 총괄되었다가 『傷寒論』의 六經 체계로 이어져 실제 임상치료에까지 연결되게 된다. 『傷寒論』은 단순히 病證에 대한 處方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六經病이라는 인체를 바라보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우주와 인체를 바라보는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다.

26) 金元四大家들은 宋代 新校正 이후 보급된 醫書를 연구하여 『黃帝內經』의 사상에 접근하고 이를 현실의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과 결합하여 인체를 바라보는 각자의 觀을 형성하였다. 主火, 補土, 滋陰의 관점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 『黃帝內經』의 陰陽五行論처럼 宇宙論과 연결되어 인간을 포함한 宇宙萬物의 변화를 함께 조

金元醫學 발전의 배경에 宇宙의 一元性を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포함되지는 않았다²⁷⁾. 그러나 金元時代 醫學이 한국에 유입되어 한국의 道家的 전통과 결합하면서 재구성된 것이 바로 『東醫寶鑑』이라 할 수 있다.

『東醫寶鑑』도 『難經』과 마찬가지로 道家的 성격과 醫學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접목된 내용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서두에 宇宙와의 소통을 통하여 心身의 승화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精氣神을 주창하였다. 『難經』의 命門 사상이 전적으로 氣一元論에 기반하고 있는 것과 달리 『東醫寶鑑』의 精氣神에 대한 主唱은 道家的 수련을 위한 一元論적인 宇宙論에 기반하면서도 동시에 辨證論治를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 측면으로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인체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精氣神의 개념을 토대로 관점을 정립하고, 방법론적으로 질병 예방과 長壽를 목적으로 한 道家的 수련을 의학에 도입하는 동시에 臟象論, 經絡論 위에 성립된 辨證論治를 통하여 病證을 치료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이는 『難經』의 思想에 비하여 매우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²⁸⁾. 즉 金元醫學이 아직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한 一元論의 宇宙觀과 개인적 수련 부분을 과감히 도입하면서, 『難經』에서 제시된 命門, 三焦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현실에 적용 가능한 精氣神 개념을 채용함으로써 道家和 醫學의 더욱 발전된 접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5. 道家 수련법과 韓醫學의 접목

현대에 韓醫學을 하면서 道家的 수련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한의사 개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치료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으며, 자신이 氣功을 통하여 몸소 체험한 경험을 환자의 생활 관리를 지도할 때 자신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氣功을 활용하여 질병을 고친다는 것은 구체적인 道家的 수련 방법이 한 의학의 진단 및 辨證論治와 합치되어야 하나의 치료수단으로 성립될 수 있다. 藥과 鍼을 사용하면서 단순히 보조적으로 氣功을 하여 치료효과를 높이는 것은 독립적인 치료기술로 보기 어려우며 환자의 病證에 상관없이 막연히 건강상태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道家的 수련법을 분화 발전된 臟象論, 經絡論에까지 연결시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두 분야가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道家 수련법들을 연구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臟象, 經絡과 유사한 개념을 서로 연결시키는 해석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해석 작업의 결과 어느 정도 두드러진 패턴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문화와 의료 현실에 맞게 새로운 형태의 질병 치료용 수련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개인적 기공 수련이나 武術 연마의 목적이 아니라 질병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몸이 온전치 않은 환자가 시행하기에 편리하도록 쉬운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편으로 韓醫學의 진단에 따라 각 病證에 적합하도록 어느 정도 분화된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의학 진단에 적합화시키는 배경에는 精氣神의 개념과 같이 통합적으로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망하여 설명해내지는 못하였다.

27) 宇宙論의 관점은 오히려 宋代부터 발달된 運氣學 속에 들어있었다. 劉完素의 경우 運氣學을 질병 치료에까지 연결시키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病因論을 중심으로 본인의 主火學說을 뒷받침한 것으로 철학사상적으로 새롭게 접목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8) 精氣神 각각의 개념은 이미 『黃帝內經』시대부터 있었으나 精氣神의 밀접한 관련성은 주로 道家 이론 속에서 강조되어 왔다. 이것이 다시 醫學에 유입되어 본격적으로 하나의 宇宙觀, 世界觀의 의미로 적용된 것은 『東醫寶鑑』에 와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一元論의 세계관에서는 宇宙가 하나의 元氣로 채워져 있으며 宇宙의 運動變化가 이 元氣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본다. 이에 비하여 人體는 분화를 거듭하여 안으로는 藏象과 밖으로는 經絡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형식의 바탕에는 精氣神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精氣神은 바로 一元氣가 분화된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생성 변화한다.

醫學은 巫術에서 분리된 이후 학문의 성격을 띠면서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좀 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화된 형식의 氣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臟象論과 經絡論을 확립하였다. 이때의 분화된 氣는 精, 神과 어느 정도 떨어져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운동하는 형이하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분화된 氣는 성숙과 精化의 과정을 거치면서 질적 변화를 일으켜 精化된 氣로 승화되는데, 이 精氣는 바로 생명을 유지하며 종족을 보존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醫學의 이상 실현에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氣이다.

道家 수련의 경우는 개인의 수련을 통하여 宇宙와 소통하고 이러한 合一을 바탕으로 보편적 인간을 초월하여 자연과 하나 되어 不老長生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氣를 내면화하여 성숙시켜 精化하는 과정보다는, 호흡을 통하여 氣를 운행시켜 天地 순환에 맞추고 丹田의 蓄氣와 의념의 집중을 통하여 精氣神을 상호 조절하는 수련 방법을 사용하였다. 道家 수련의 경우 精氣神은 宇宙와의 소통 과정에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 반면에, 醫學의 경우 精氣神은 극도로 분화된 氣들을 통합하여 전체적인 관계 속에 人體의 변화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一元을 추구하는 개인적 수련과 질병을 치료하는 분석적 관점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나가는가가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道家의 수련과 의학적 치료를 새롭게 접목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식의 수련 방법과 韓醫學의 藏象, 經絡 개념을 연결함으로써 질병 치유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는 동시에 개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1. 趙博. 氣一元論與『內經』氣化理論形成的探討. 陝西中醫. 2007.
2. 朴贊國. 《傷寒論》三陰三陽에 對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3.
3. 梁宗華. 董仲舒新儒學體系與道家黃老學. 齊魯學刊. 1999.
4. 丁彰炫. 鬼神에 대한 《黃帝內經》의 입장.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7.
5. 白裕相.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氣轉化 過程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6. 白裕相. 四象醫學이 가진 韓國韓醫學의 特性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9.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10. 尹暢烈, 金容辰. 難經研究集成. 大田. 周民出版社. 2002.
11.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朴贊國. 서울. 集文堂. 2005.
12. 申容澈. 醫療氣功學概論. 서울, 癸丑文化社. 2007.